

장흥, 소설가 한승원 문학터 복원 '속도'

LOCAL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도비 7억 포함 사업비 14억 확보...생가 부지 매입 완료 김성 군수 "'노벨 문학도시 장흥' 상징 대표자원 육성"

장흥군이 지역 대표 문인이자 현대문학의 거장인 한승원 작가의 문학터 복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4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한승원 문학터 복원사업'을 위한 도비 7억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총 사업비는 도비 포함 총 14억원이다.

앞서 장흥군은 지난 1월 회진면 신상리에 위치한 한승원 생가 부지를 매입하며 사업의 첫 단추를 끼웠다. 한승원 작가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등 다수의 명작을 집필한 장흥 출신 대표 문인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부친이기도 하다.



장흥군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전국 각지에서 방문객들이 한승원 문학터를 찾고 있는 점을 반영해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관광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복원사업을 발 빠르게 추진해왔다.

다. 이번 예산확보로 장흥군은 문학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흥군은 오랜 문학 전통과 풍부한 문학 자산을 기반으로 지난 2008년 전국 최초이자 유일의 '문학관광기행특구'로 지정된 이후 17년간 이를 유지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노벨문학도시 장흥'으로 새로운 지역 브랜드를 정하고 장흥만이 가진 문학의 가치와 정서를 함양하고 공경하는 명실상부한 문학관광도시로 발전해 나가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한승원 문학터가 복원될 경우 이 정준 생가와 한승원 문학산책로 등을 연계한 해안 문학길이 조성돼 더욱 풍성한 문학기행 관광코스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성 군수는 "현대 문단의 거장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한승원 작가의 생애와 창작의 뿌리가 담긴 문학터를 복원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며 "'노벨 문학도시 장흥'을 상징하는 대표 문학자원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gwangnam.co.kr

고흥, 민원처리기한 단축 주민 신뢰성·만족도 향상

고흥군은 올해 1분기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 분석한 결과, 민원처리기한 단축률이 전년 동기 대비 3.12%p 상승했다고 14일 밝혔다. 1분기 동안 처리된 법정 처리기한 1일 이상 유기한 민원 9만5831건을 분석한 결과, 민원처리기한 단축률은 51.82%로, 전년(48.70%) 대비 3.12%p 높여졌다. 또한 민원처리기한 준수율은 99.69%로 전년(98.48%)보다 1.21%p 상승하며, 민원서비스 신뢰성과 주민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군 관계자는 "민원처리기한 단축은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밑거름"이라며 "군민이 감동하는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흥군 친절·청렴 브랜드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보성 울포술발해수육장 장기 방치 취사용품 등 제거

보성군은 지난월부터 울포술발해수육장 내 무단 야영 행위와 장기 방치된 텐트에 대해 강력한 계도 및 철거 조치를 시행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변 환경을 조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울포술발해수육장'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자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여름철 대표 명소로, 최근 무분별한 야영과 취사 행위로 인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해왔다. 이에 군은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 방치된 취사 및 야영용품 제거를 통한 해수욕장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왔다. 군은 불법 텐트에 대한 현장 계도와 자진 철거 안내를 거친 후, 장기 방치된 시설에 대해 철거를 완료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해수욕장은 본래의 공공 공간으로서 기능을 회복했으며, 쾌적하고 질서 있는 이용 환경을 되찾았다. 군 관계자는 "울포술발해수육장은 이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돌아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관리를 통해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핑을 희망하는 이용객들을 위해 울포술발해수육장 인근에는 전기, 샤워실, 개수대 등 편의시설을 완비한 '울포요토크캠핑장'이 상시 운영되고 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여수, 세계지방정부협의회 협력기관 지정 섬박람회 성공 개최·제33차 COP33 유치 등 탄력

여수시는 최근 세계지방정부협의회(이클레이)의 협력기관으로 지정 승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5개국 2500여개의 회원 도시를 보유한 이클레이의 연결망을 활용해 정책 자문, 국제 프로젝트를 참여 등 다각적인 협력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 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이클레이 공식 로고 사용을 승

인받으며 각종 홍보물 및 공식 문서에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상징성을 활용한 브랜드 파워(상표경쟁력)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달 24일 독일 본에 위치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세계본부를 방문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섬박람회 홍보 지원,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등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여수시는 최근 세계지방정부협의회(이클레이)의 협력기관으로 지정 승인됐다.

김동수 열사, 5월 '장성역사인물' 선정

24일 임곡마을회관에서 추모제다. 장흥군이 5월의 '장성역사인물'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을 지키던 김동수 열사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동수 열사는 1958년 장성군 서삼면 장산리 숲실마을에서 태어나 조선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한 뒤, 대학생 불교연합회 활동과 함께 민주화운동에 참여했

다.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총탄에 스물셋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군은 열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14일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열고, 다음 날부터는 문향고등학교와 군청 1층에서 관련 사진전을 개최한다. 24일에는 고향 장산리 임곡마을회관 앞에서 추모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통일 염원하며 '평화연' 날려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회장 남기호)는 최근 광양읍 서천변 공원에서 '통일의 염원 평화연날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시민과 아이들이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직접 느끼고,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비가 내리는 곳엔 날씨에도 자문위원을 비롯한 어린이, 청소년 등 350여명이 참여해 각자의 소망을 연에 담아 하늘로 띄웠고, 통일에 대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나주, 식품안전관리 '우수'...쾌적한 외식환경 조성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 위해 식품 회수 등 호평

나주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한 '2025년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식품안전관리 운영 실적을 기준으로 우수 지자체를 선정·포상해 모범 사례를 확산하고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광역·시·도 17곳, 시·군·구 기초지자체 228곳을 대상으로 '제도운영', '위생관리', '협업사례' 등 3개 영역, 8개 지표에 따라 평가했으며 우수기관 선정 평가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쳤다. 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식품위생의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행정에 힘입어 식품업체 대상 점검률, 범 위반 적발률,



나주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한 '2025년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원 처리 기한 준수율, 위해 식품 회수 실적 등에서 두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식품위생과 더불어 음식문화 분야에서 도 괄목할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500만 관광객을 목표로 먹거리 관광 경쟁력 확보와 음식문화 발전을 목표로 '남도음식거리조성', '나주밥상 브랜드화', '위생업소 시설

개선', '목사밥상 재현' 등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왔다. 윤병태 시장은 "안전한 식탁은 시민의 건강한 삶의 출발점이다"며 "앞으로도 나주 음식문화의 우수성과 쾌적한 외식환경 조성을 통해 먹거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종합인쇄전문기업

(주)다원

최저가 인쇄소평률 1688-9959

(주)다원은
성실과 신의를 기업이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보다 큰 의욕,
그리고 새로운 긍지와 자부심으로
정성의 땀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원인쇄솔루션 검색